

우리는 아직 거기에 있지 않다.

글 조형준
편집 손민선

“개업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뭐 하나 사주고 싶은데 좋은 걸로, 갖고 싶은 거 얘기해봐요”

난 조금 고민하다가 쑥스럽게 이야기했다.

“와인셀러”라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찾아서 링크 보내줘요”

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서 싸고 이쁘게 생긴 12구짜리 반도체 방식의 와인셀러 링크를 보냈다. 그때부터 와인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다. 아직도 집에 있는 셀러를 볼 때마다 강서경 작가를 생각한다. 이쁘지만 성능도 좋지 않고, 고장도 잘 나지만 버리지 못하고 고쳐서 계속 사용 중이다. 아마 이 고물 와인셀러가 없었다면 이 정도로 와인을 좋아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와인에 탕진하지도 않았겠지만, 우울함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어릴 땐 우울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정면으로 맞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어린 데다가 겉멋까지 가득 들어서 그랬을 거다.

시간이 더 지나 우울함은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도망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몇 가지의 출구를 찾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우울함은 마치 멀티탭에 꽂혀있는 콘센트 같아서 삶의 전원과 늘 함께한다.

조금 어긋나게, 와인셀러 이야기와 우울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위에서 서술한 두 가지의 속성은 언어의 속성과 비슷하다 못해 거의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과연 언어는 의미를 뒷받침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대부분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표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혹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언어로 의미를 확정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넘쳐난다. 그러니까 의미를 확정짓는 것이 언어인지, 언어를 확정짓는 것이 의미인지 사실상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언어가 와인셀러라면, 의미는 와인이고, 우울함은 곧 세상에 일어나고 존재하는 것(객체)들이다.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뒤섞이며 변화하는 ‘규칙’이며, 이것을 매번 다른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몸’이다. 더하여 언어에서 ‘랑그’가 변하지 않는 규칙이라면, ‘파롤’은 몸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방식이다.

임주영(이반림)의 희곡 ‘말하기 그리고 멈추기’는 단순히 언어와 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파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을 거듭해가며 두 인물(‘모’와 ‘이’)은 소통을 시도하려는 듯 보이다가도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성을 해소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변주를 해가며 마지막까지 두 인물 사이의 진정한 소통의 불가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언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몸을 통과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희곡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시각적 혹은 청각적 텍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들이 누군가의 몸을 통과해 다시 보여질 가능성-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희곡이 사실상 어떤 공연일지 알 수 없다. 여기서 희곡과 공연의 관계가 전복되는데, 희곡은 실제 공연이라는 매체로 번역되기 전까지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이고, 희곡이 공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희곡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극 중에서 ‘모’와 ‘이’의 언어와 의미는 점점 갈라지며 물리적 거리 역시 멀어지는데, 물리적 거리가 실제로 소통의 어려움과 연결되는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공간을 환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호흡은 이 희곡의 형식 자체가 단절, 소통 불가능, 답답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희곡과 공연의 관계, 공연과 관객의 특수적인 관계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극의 마지막에는 ‘모’에게서 언어가 사라지고 몸만 남게 되는데, 남은 몸은 처음에는 어떤 동물처럼 혹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체의 움직임 같아 보이다가 점점 무엇인가 발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발화’의 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몸은 늘 움직이고 있고 언어에 따른 세계의 규칙을 파를을 통해 발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언어는 대부분 정신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몸이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정신이 없는 사람이 많지만, 몸이 없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언어는 몸의 문제에 점점 가까워진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언어는 의미를 뒷받침하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임주영(이반립)은 이 질문에 때때로 언어가 의미를 뒷받침하지 않으며(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나아가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대답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소통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불가능한 소통 역시 소통의 한 종류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것은 누군가의 고통이나 소외의 문제를 넘어서 개념과 관련된 세계의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